

제공일자	2014. 6. 18(수)	담당자	김석영 연구위원(금융전략실)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051)	연락처	3775-9029
			총2매

제목 : 비차익 중심의 보험회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위험률 관련 규제 개선 시급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차익 중심의 보험회사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14년 6월 19일(목)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보험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하였음.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석영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비차익 중심보다는 보험의 본업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률 산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음.

보험회사 수익구조가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률차익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역할인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통한 이익이기 때문임. 보험계약자는 불확실성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 보장 및 관리 노력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또한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인해 형성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첫째, 위험률차익 향상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그리고 상품개발 능력과 같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이 요구되며 이는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임.

둘째, 위험률차익을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은 장기보장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임. 일본의 경우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안전할증에 기인한 것임. 불충분한 안전할증으로 갱신형 상품을 개발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입원, 수술과 같은 상품도 종신으로 보장하고 있음.

셋째, 고연령층에 대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임. 인구구조 변화로 35-44세 인구가 줄어들어 보험상품의 주요 고객층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보험상품 주 판매대상이 아니었던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구구조와 전혀 다른 보험계약자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임.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 허용은 보험회사가 고연령층에 대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따라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위험률 산출 시 통계적 변동성에 대한 안전할증 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화에 따른 안전할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이익의 확보가 필요함.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12년 기준 RBC비율 150%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약 3조-4조 5,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2012년 생명보험 산업 전체 당기순이익 3조 2,000억 원으로는 최소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보험시장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도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도 개선하여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해야 할 것임.